신라·가야 단경호와 장경호의 연구*

박 광 춘**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단경호와 장경호의 용도
Ⅲ. 편년의 기준이 되는 단경호와 장경호
Ⅳ. 장경호의 지역색
Ⅴ. 맺음말

개 요

신라·가야토기에 있어 고배와 더불어 단경호와 장경호는 편년과 지역색을 밝히는데 있어 기준 기종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단경호의 경우 형태는 비슷하지만 용도가 다른 두 기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기종으로 분류하고 있음으로 해서 신라·가야토기 편년 연구에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 기대 안에 얹혀서 사용되는 단경호와 장경호를 중형호라는 기종으로 모아서 형식 분류하면 단경호→중경호→장경호로 형식 변천함을 알 수 있다. 장경호는 무개장경호, 유개장경호, 대부장경호, 유개대부장경호 등 여러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는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기도 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는 무개장경호에서 발전된 형식이므로 문화의 연속성의 법칙에 의거하여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체 문화의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우선 단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kcpark@dau.ac.kr)

경호를 고분에 부장된 양상에 따라 용도가 다른 두 기종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후, 기대 안에 얹혀서 사용되는 단경호의 경우 단경호에서 장경호로 형식이 변천함을 명확히 했다.

장경호는 단경호에서 형식 변천하였으며,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인 유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가 출현함에 따라 무개장경호로 명명하여 지역색을 고찰하였다. 무개장경호는 중형호의 형식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같이 유행하기 때문에 고배의 투창을 대신하여 신라·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종래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를 정치체의 문화적 지표로 해석하여 신라양식 혹은 대가야양식이라고 하는 일방적 해석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고고학도 역사학의 일부분이며, 문헌 기록을 무시한 채 금관가야와 더불어 가야의 수많은 정치체의 문화를 고고학자가 만든 검증되지 않은 기준에 의해 그릇되게 해석하는 문제점을 직시해야 고고학이 발전할 것이다.

주제어 : 단경호, 장경호, 용도, 편년, 지역색

Ⅰ. 머리말

고고학에 있어 수많은 인공물을 분류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거나 비슷한 유물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특히 인공물 중에서 유물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분류한 대표적 예가 19세기 초에 발표한 Thomsen의 삼시대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학설은 그 당시 사회적 관습과 종교, 선입견 등에 의해 비판을 받거나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삼시대 구분법은 그 당시 종교적 관념에 사로잡힌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학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창조론이 득세하던 그 당시 인공

물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진화론적 사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학설이었다. 비록 Thomsen은 살아생전 이러한 학설을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그 제자들에 의해 층위학으로 삼시대구분법을 검증하여 지금 이것을 부정하는 고고학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서양에서 시작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고고학을 받아들여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물건을 통해 과거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은 아무래도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보다 과학적인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학설이 새로운 발굴자료에 의해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잘못된 학설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다른 학설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신라・가야토기에 있어 단경호와 장경호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일찍부터 연구되어 고배와 더불어 편년과 정치체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단경호와 장경호의 용도와 지역색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단지 형태를 중시하여 단경호와 장경호로 불러왔기 때문에 편년과 문화권 연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신라・가야토기 분류체계에 있어 경부가 짧은 단경호는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용도가 다르면 분류체계를 달리해야 한다. 장경호도 무개장경호, 유개장경호, 대부장경호, 유개대부장경호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지며 이것에 대한 용도와 지역색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고배를 무개고배와 유개고배로 분류하는 것은 용도적 차이도 있지만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경호도 고배와 같이 무개와 유개로 구분하여 시간적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색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될 것이다.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가 과거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대표하는 기종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해서 용도와 지역색을 무시하면 고고학 발전은 지체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고학이 발전을 거듭하려면

과거의 좋은 학설은 참고로 하고 잘못된 연구 방법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양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우리 고고학에 적용할 때 시대구분법처럼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적어도 용도와 형식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은 잘 소화시켜 바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단경호와 장경호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어떤 분류 계급[1]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만약 단경호와 장경호를 많은 학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기종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라·가야토기 연구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 최근 신라·가야토기 편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경호의 지역색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단경호와 장경호의 용도

서양에서 초기 고고학 방법론 확립에 있어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고고학자는 O. Motelius 와 V.G. Childe를 들 수 있다. O. Motelius는 형식학을 정립시키면서 고고학에 있어 시간의 지표인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V.G. Childe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과 더불어 용도와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 서양 고고학 방법론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학자가 기초를 마련한 인공물의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이 단경호와 장경호를 기종명으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

1) 생물학의 분류계급은 종·속·과·목·강·문·계가 있듯이, 토기의 분류계급은 형식과 기종이 있다.

2) Montelius, O. Die typlogische Methode: Die älteren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vol. i. Stockholm, Selbstverlag, 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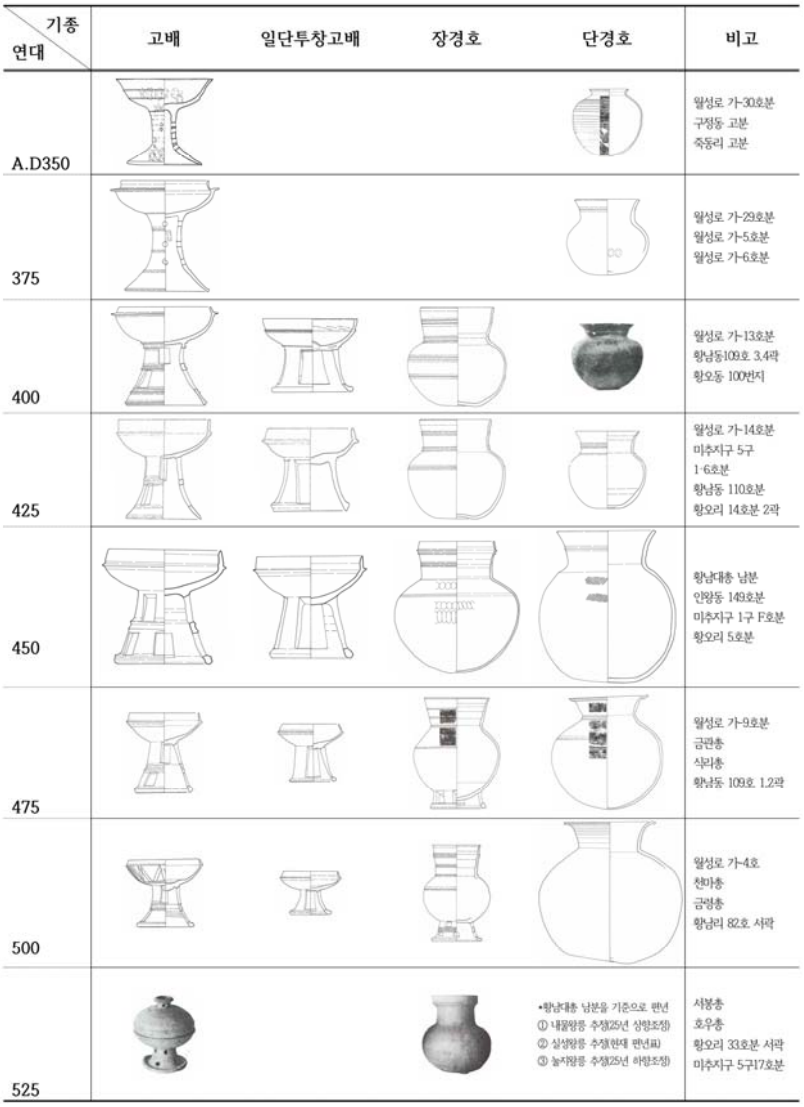
1. 분류의 제1법칙 용도

V.G. Childe는 과거 사회에 승인된 표준적 행동양식을 해명해서 그들의 사회 재산 중에서 우리들이 지금 계승하고 축적된 문화적 전통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작업은 고고자료를 분류함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고고학적 분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기초 즉, 기능적[functonal], 편년적[chronological], 분포적[chorological]인 의해 성립되며, 고고학적 현상은 세 개의 좌표에 의해 위치가 부여된다고 했다[3]. 이 중 분류의 제1기초는 기능적 기준 즉 제작 목적 혹은 사용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만 용도를 모를 경우 할 수 없이 형태에 의해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용도가 명확한 경우 V.G. Childe가 언급한 것처럼 같은 용도끼리 모아서 분류 계급명을 부여한 다음 편년적(시간) 혹은 분포적(공간)인 지표인 형식 분류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V.G. Childe가 분류의 제1법칙인 기능 혹은 용도를 중시하여 토기에 적용한 분류 계급명을 우리나라에서는 기종이라고 부른다[5]. 신라·가야토기 중에서 대표적 기종은 고배, 기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호류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기종명에 있어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경호와 장경호의 경우 용도에 대한 검토 없이 형태에 의해 명칭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형태만 같으면 용도가 달라도 단경호로 불리어진다거나, 장경호의 경우 단경호와 같은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6] 때문에

---

3) V.Gordon Childe, 『Piecing Together the Past』,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4.
4) 横山浩一, 「型式論」, 『日本考古學』1, 岩波書店, 1985, 48~53쪽.
5) 박광춘, 「가야토기의 분류단위 설정과 편년」, 『가야문화』 7, 가야문화연구원, 1994.
6) 용도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것은 시간이 형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기종
연대
고배
일단투창고배
장경호
단경호
비고
A.D350
월성로 가-30호분
구정동 고분
죽동리 고분
375
월성로 가-29호분
월성로 가-5호분
월성로 가-6호분
400
월성로 가-13호분
황남동109호 3.4곽
황오동 100번지
425
월성로 가-14호분
미추지구 5구
1·6호분
황남동 110호분
황오리 14호분 2곽
450
황남대총 남분
인왕동 149호분
미추지구 1구 F호분
황오리 5호분
475
월성로 가-9호분
금관총
식리총
황남동 109호 1.2곽
500
월성로 가-4호
천마총
금령총
황남리 82호 서곽
525
•황남대총 남분을 기준으로 편년
① 내물왕릉 추정(25년 상향조정)
② 실성왕릉 추정(현재 편년표)
③ 눌지왕릉 추정(25년 하향조정)
서봉총
호우총
황오리 33호분 서곽
미추지구 5구17호분

[그림 1] : 신라토기 편년안

다른 용도로 취급하여 기종명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

단경호의 경우 기대 위에 얹혀서 사용되는 용도를 가진 것과 너무 커서 기대 위에 얹혀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명백히 용도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부가 짧다는 공통된 특징에 의해 단경호로 같이 부르고 있다. 이에 비해 무개장경호와 유개장경호는 단경호와 같이 기대 위에 얹혀서 사용되는 됨에 따라 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종명을 부여하고 있다. 마치 무개고배와 유개고배를 고배라는 같은 기종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기종명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

2. 단경호와 장경호의 용도

우리가 신라・가야토기를 용도의 지표인 기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토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유물의 연대를 추측하기 위한 형식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시간과 공간의 지표인 형식 분류는 같은 용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림 1]은 영남고고학회에서 펴낸『영남의 고고학』에 실린 신라 토기의 편년이다. 여기서도 단경호와 장경호를 기종명으로 사용하고 있다[7].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경부가 짧은 단경호의 경우 용도가 다른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형태에 의해 기종으로 명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분류의 제1법칙은 용도에 의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단경호의 경우 단지 경부가 짧은 것은 닮아 있지만 용도와 크기가 다른 두 종류가 있다.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용도 뿐 아니라 출현 시점과 계통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단경호를 기고와 동부최대경에 의해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용도가 다른 두 종류의 단경호를 기종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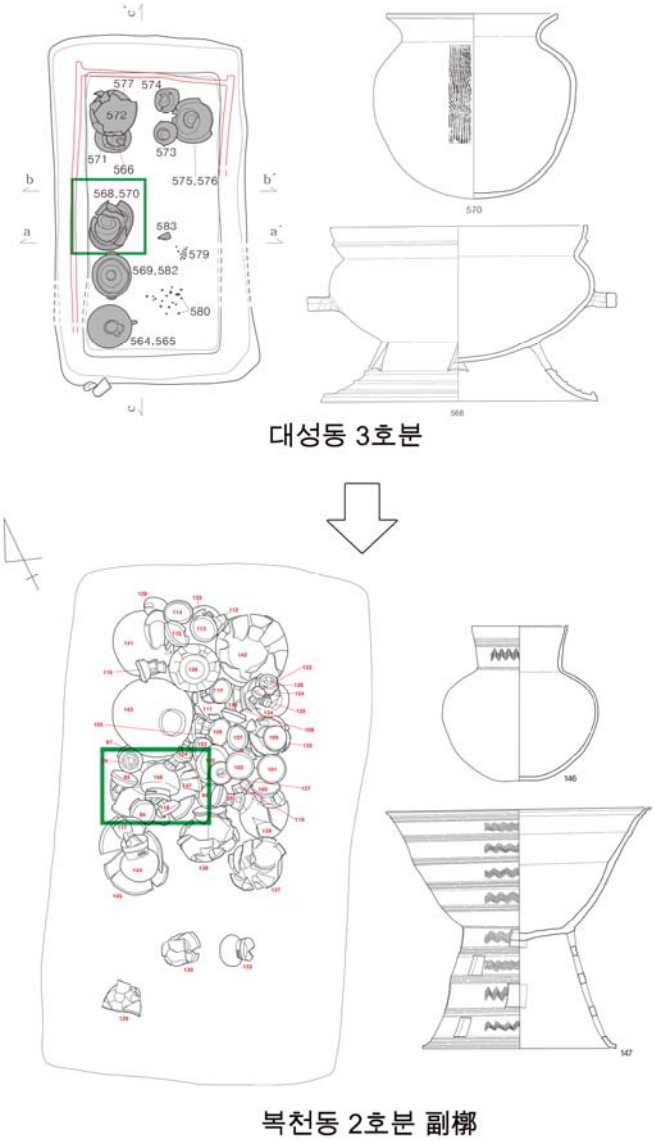
7) 영남고고학회,「신라토기」,『삼국시대』, 사회평론, 2015, 382쪽.

달리할 것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8]. 그러나 여전히 용도를 무시하고 경부만 짧으면 단경호, 길면 장경호로 부르고 있어 미술사적 고고학의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경호와 장경호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유적에서 출토되는 단경호와 장경호는 기종 구분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편년을 위해서는 시간의 지표인 형식을 추출해야 한다. [그림 1]의 편년표는 단경호의 경우 용도가 다른 두 기종이 섞여 있어 정확한 형식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단경호의 형식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라・가야토기의 기종 중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고배의 경우 현재 사용되는 祭器와 닮아 제기와 용도가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 용도를 100%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기종의 경우 발굴을 통해 출토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용도를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림 2]는 대성동 3호분의 단경호 부장 양상과 복천동 2호분 부곽의 장경호 부장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9]. 이 그림에서 단경호와 장경호는 기대 안에 얹혀서 출토됨에 따라 같은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경호는 단경호에서 형식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단경호 중에서 동부최대경이 10cm~25cm인 단경호는 주로 기대와 동반하여 기대 안에 얹혀서 매장시설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즉 기대의 용도는 저부가 둥근 단경호를 받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단경호가 평평한 바닥에서 사용될 경우 혼자서는 용기로서 역할이 어렵다. 기대와 동반하는 경우 단경호는 비로소 의례 용기로 사용할 있게 된다. 이에

8) 朴廣春, 「韓國陜川地域における土壙墓出土土器の編年的研究-多變量解析による分析」, 『古文化談叢』22, 1990.
朴廣春, 「釜山・金海地域の古墳出土土器の編年的研究(上)(下)」, 『古代文化』 43-2・3,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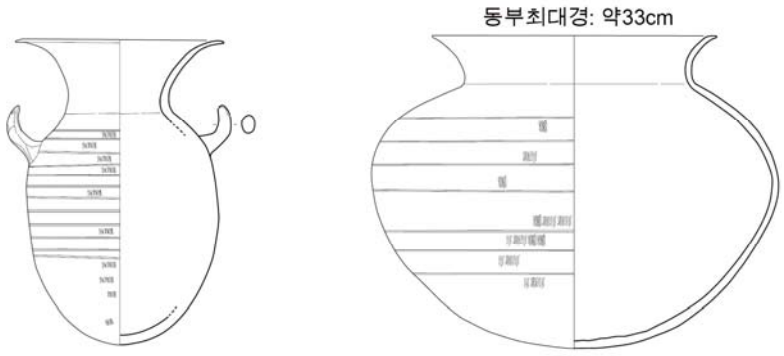
9)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대성동유적(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2015.
부산대학교박물관, 『복천동고분군Ⅳ』, 2015.



[그림 2] : 단경호와 장경호의 부장 양상에 의한 용도 추정

비해 [그림 3]의 양동리 19호분 출토 단경호는 동부최대경이 25cm 이상이기 때문에 기대에 안에 얹혀서 사용될 수 없다[10]. 주로 저장 용기로 흙바닥에서 독립되게 사용되고, 너무 커서 기대 안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부가 짧다는 이유로 이렇게 용도가 다른 호를 같은 기종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고고학의 제1 법칙인 분류의 기본 법칙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종을 설정하면 단경호의 형식 조열을 만들 수 없으며, 장경호의 형식 변화와 지역색에 대한 구분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기종이라는 분류단위를 용도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하지 않는다면 형식 분류도 시간과 공간적 속성에 의거하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류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것이다. 고고학 연구에 있어 형식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준 없이 제멋대로 분류한다면 고고학은 과학적 학문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단경호와 장경호는 중형호라는 같은 기종에 속하면서, 단지 시간이 형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형식명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림 3] : 양동리 19호 출토 단경호와 동반유물

10)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양동리 유적』,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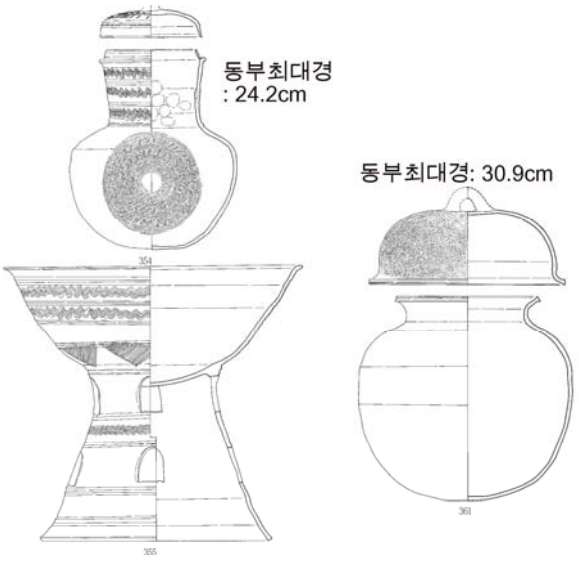
3. 고령 지산동 73호분 부곽 출토 단경호와 장경호의 용도

[그림 4]에서와 같이 고령 지산동 73호분 부곽 부장 양상 복원도는 단경호와 장경호의 용도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11]. 이 그림에서 단경호는 전부 뚜껑을 가지고 있으며 기대 안에 얹혀 있는 것은 없다. 아마 곡식류를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유개장경호는 10점 중 7점이 기대 안에 얹혀서 부장되고



[그림 4] : 고령 지산동 73호분 부곽 부장 양상 복원도

있다. 복원도가 정확하다면 유개장경호 3점은 단경호와 같이 세워서 부장하였다. 기대는 총 12점이 출토되었는데 5점은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7점은 유개장경호를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도를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림 5]는 기대 안에 얹혀 있는 유개장경호의 동부최대경과 기대 옆에 세워서 부장한 단경호의 동부최대경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5] : 고령 지산동 73호분 부곽 출토 유개장경호와
단경호의 동부최대경 비교

유개장경호의 동부최대경은 대부분 25cm 이하로 30cm를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비해 단경호의 동부최대경은 30cm 이상이 대부분이다. 기대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동부최대경이 30cm를 넘어가는

1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 2012.

壺의 경우 기대 안에 얹히기가 어렵다. 이처럼 [그림 5]의 단경호는 기대 안에 얹힐 수가 없으므로, 유개장경호와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동부최대경이 30cm 이상인 단경호는 기대 안에 얹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개장경호와 용도가 다른 저장 용기로 추정할 수 있다. 토기 분류에 있어 용도가 다른 것은 기종명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大壺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었다[12].

가야 서부지역의 기대 안에 얹혀있는 壺들을 모아서 분류해 보면 단경호 → 중경호 → 무개장경호 → 유개장경호로 형식 조열을 만들 수 있다[13]. 즉, 유개장경호의 가장 오래된 형식은 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경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유개장경호의 고형식인 단경호는 고령 지산동 73호분 부곽 출토 단경호와 속성을 비교하면 동부최대경이 대부분 25cm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대 안에 얹히게 제작된 단경호는 동부최대경 25cm 이하인데 비해, 고령 지산동 73호분 부곽 출토 단경호는 동부최대경이 30cm 이상이 대부분이다[14]. 신라・가야 단경호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면 단경호에서 형식 변화를 거쳐 유개장경호가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경호에서 장경호로 형식 변천한 호들을 신라・가야토기 편년의 기준 기종으로 활용할 수 없다. 나아가 기대 안에 얹혀서 유행하는 호들의 집합체인 中形壺[15]의 지역색마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12) 朴廣春, 앞 논문, 1990.
13) 박광춘, 「가야토기 大地域色 연구」, 『문물』 6, 한국문물연구원, 2016.
14) 동부최대경이 30cm 이상인 단경호는 대호로 부르고 있다.
15) 朴廣春, 앞 논문, 1991.

Ⅲ. 편년의 기준이 되는 단경호와 장경호

신라·가야토기를 편년함에 있어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종은 고배이다. 고배가 편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신라·가야 유적에서 대부분 출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배의 경우 속성이 너무 많아 시간적 속성에 의해 형식 분류하기 대단히 어렵다. 고배의 형식 변화 방향을 무개고배는 단각에서 장각으로, 유개고배는 장각에서 단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류했으나 각부 길이만으로 형식을 정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16]. 무엇보다 편년을 위해 고배 외에 다른 기종의 형식 조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단경호와 장경호가 왜 편년의 기준으로 중요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1. 형식 조열 검증에 있어 단경호와 장경호의 중요성

형식학은 유물의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 형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을 창안한 O. Motelius는 형식은 연구자가 책상 위에서 만들어낸 작업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필히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7]. O. Motelius의 형식의 검증 방법은 층위학, 흔적기관, 동반유물을 소개하고 있으나 층위학과 흔적기관은 검증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O. Motelius가 가장 즐겨 사용한 방법은 동반유물이다. 동반 유물에 의해 형식 조열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반하는 다른 기종의 형식 조열이 필요하다. 신라·가야 전 시기에 출토되며 가장 많은 출토 예를 보이는 고배를 분류하여 형식 조열을 작성했다면 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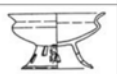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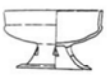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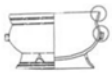
16) 박광춘, 「加耶土器의 시원과 부산·김해지역 토기 편년 재검토」, 『영남고고학』27, 영남고고학회, 2000.
17) 박광춘, 「수리 형식학의 모색」, 『영남고고학』20, 영남고고학회, 1997.

이외의 다른 기종인 기대의 형식 조열을 만들어야 검증이 가능하다. [표 1]의 예시 1과 예시 2처럼 고형식과 고형식끼리는 서로 동반하며 신형식은 신형식끼리 동반해야 비로소 검증이 완료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시 1과 예시 2의 형식 조열이 다른 것은 고배의 형식 변화 속도가 기대의 형식 변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배의 경우 형식을 조열했다고 해도 다른 기종에 비해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형식 변화 방향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동반 유물 중 다른 기종을 선택하여 검증을 거쳐야 비로소 형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표 1] : 동반유물에 의한 형식 조열 검증 방법

예시 1		예시 2		예시 3	
고배	기대	고배	기대	고배	기대
A	a	A B	a	B	a
B	b			F	b
C	c	C D	b	A	c
D	d			E	d
E	e	E F	c	D	e
F	f			C	f

그런데 종래 신라・가야토기의 편년 연구를 살펴보면 알기 쉽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형식이 작성된 것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검증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형식학의 창안자인 O. Motelius가 형식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가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두 기종 이상의 형식 조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형태적 차이에 의한 형식 분류에 집착한 나머지 검증 절차는

형식명	유구명	도면	동반유물		曆年代
			중형호	기대	
무개1형식 (화로형)	구지로 28호분				* 後漢鏡 (內行花文鏡)
무개2형식 (1단 투창)	양동리 235호분				200년
무개3형식 (직립외절구연)	구지로 9호분				
무개4형식 (외절 구연단각)	대성동 47호분				* 弥生時代 中廣形銅矛
무개5형식 (외절 구연장각)	대성동 3호분				300년
무개6형식 (2단 직렬투창)	칠산동 20호분				
무개7형식 (외반구연 장각)	화명동 2호분				* 日本 宇治市街 遺蹟 389년 나이테 연대
무개8형식 (2단 교호투창)	칠산동 33호분				400년
이단교호투창 유개고배1형식	죽곡리 29호분				
이단교호투창 유개고배2형식	죽곡리 59호분				
이단교호투창 유개고배3형식	죽곡리 51호분				500년
일단투창단각 고배	죽곡리 87호분				* 금관가야 멸망

[그림 6] : 금관가야 고배와 중형호의 동반관계(박광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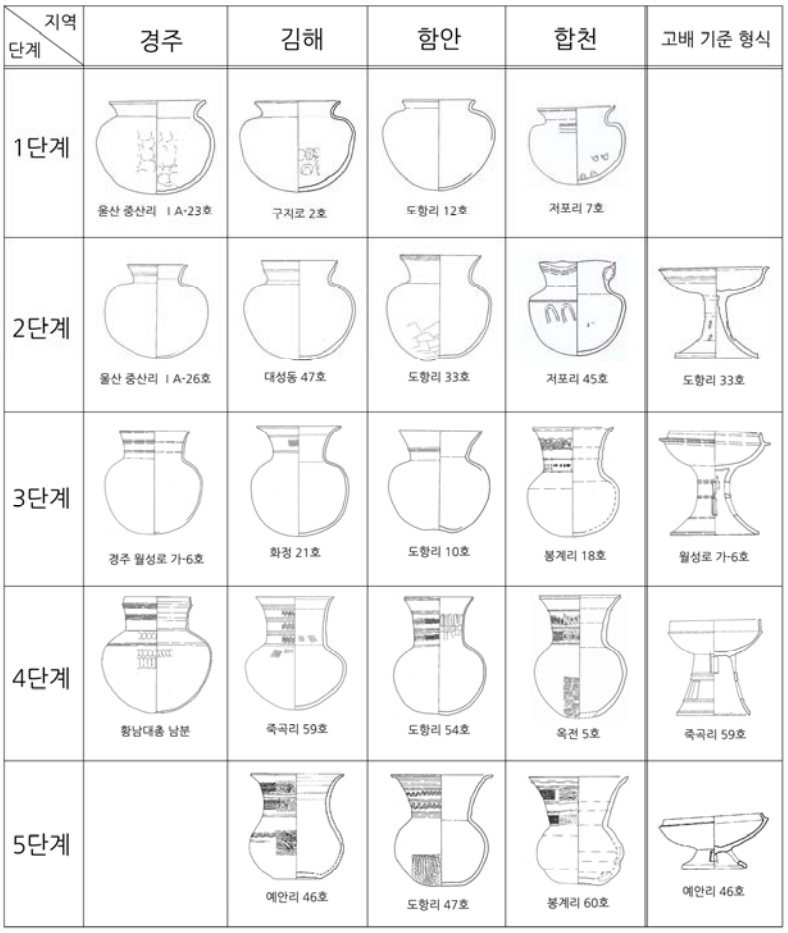
무시하고 있다. 사실 검증 절차 없이 만들어진 형식은 시간의 지표라고 할 수 없다.

어떻든 신라・가야토기의 편년을 정확하게 하려면 동반하는 두 기종 이상의 형식 조합을 만들어 형식 조열의 검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신라・가야토기의 많은 기종 중에서 형식 변화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형호의 형식이 단경호에서 장경호로 변화하는 것이다. 최근 신라토기 편년에 있어 기대 안에 얹히는 중형호를 기준 기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18]. 그러나 중형호의 형식인 단경호와 장경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기 다른 기종으로 취급하고 있어 형식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림 6]과 같이 고배의 형식 변화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형호의 형식 변화는 단경호에서 경부가 점차 길어져 광구장경호로 변화하는 형식 조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19]. 만약 고배를 분류하여 형식 조열을 만들었다면 동반하는 중형호에 의해 비교적 쉽게 검증 할 수 있다.

2. 단경호에서 무개장경호에 이르는 형식 조열

종래 단경호와 장경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적에서 출토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기대에 얹혀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기대에 얹혀서 출토되는 단경호와 장경호는 용도가 같기 때문에 동일 기종으로서 中形壺라고 명명할 수 있다. 중형호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형식 분류해 보면 의외로 많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라・가야토기의 어떤 기종보다 형식 변화 방향을 이해하기 쉽다. [그림 7]에서 신라와 가야의 단경호에서 장경호로 형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신라의 경

18) 중앙문화재연구원, 「고 신라토기」, 『신라고고학개론 下』, 2014, 진인진.
19) 박광춘, 「금관가야 토기의 표준형식과 편년」, 『호남고고학』 37, 호남고고학회, 2011.



[그림 7] : 단경호에서 장경호로의 단계별 형식변화

우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가야는 금관가야, 아라가야, 다라국(합천)을 대상으로 조열을 만들어 보았다. 중형호의 형식 조열에 있어 시간적 기준이 되는 것은 동반하는 고배를 대상으로 했다. 2단계의 시간적 공통 지표가 되는 工字型 무개고배는 경주 죽동리 1호 목곽묘를

비롯하여 동래 복천동 57호분, 합천 삼가고분군 Ⅲ-2호 목곽묘 등 신라・가야의 고분군에서 출토되다. 특히 工字型 무개고배는 중경호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2단계를 대표하는 고배 형식으로 볼 수 있다[20]. 3단계의 시간적 공통 지표인 직렬이단투창무개고배는 각부 길이가 10cm 전후로 아주 길고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특징을 가진 것이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4세기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경주 월성리 가-6호분과 화정 21호분에서도 출토되고 있다[21].

도항리 10호분과 봉계리 18호 목곽묘의 경우 동일한 유개고배의 형식은 출토되지 않고 있지만 동반하는 다른 토기들의 통하여 동일 시간대에 유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장경호의 가장 고식이 출토되는 것이 3단계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 단계의 고식무개장경호는 4단계의 신식무개장경호에 비해 경부에 문양이 없거나 파상문 문양대가 1개인 것이 대부분이다. 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2~4세기에 축조된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신라와 가야의 대표적 정치체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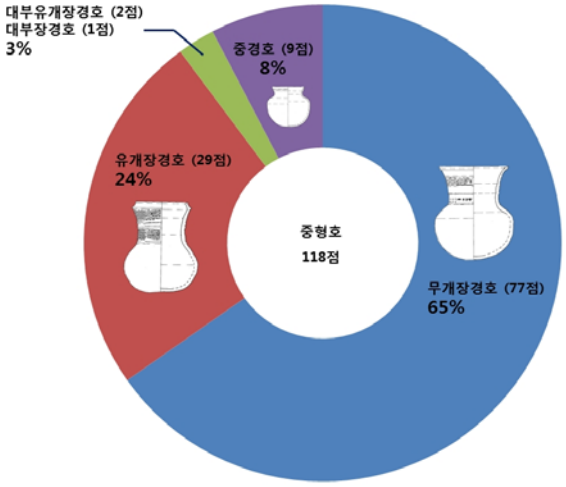
[그림 7]에서 1단계의 단경호에서 2단계에는 경부가 약간 길어진 중경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 이러한 새로운 형식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라・가야토기 연구자의 일부는 중경호라는 형식이 단경호와 장경호의 중간 형식이라는 것에 인지를 못하고 있다.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와 가야의 대표적 정치체인 김해의 금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 합천의 다라국에서 단경호에서 장경호로 형식 변화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각 단계

---

20) 경주국립박물관, 『경주 죽동리 고분군』, 1998.
동서문물연구원, 『합천 삼가고분군Ⅲ』, 2014.
21) 경주국립박물관・경북대학교박물관, 『경주시 월성로 고분군』, 1990.
복천박물관, 『김해화정유적Ⅱ』, 2009.
22) 朴廣春, 앞 논문, 1990.

별로 형식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색 때문이다. 특히 3단계의 경주 월성로 가-6호 출토 고식무개장경호는 경부가 거의 90° 로 직립하는데 비해, 김해·함안·합천지역 출토품은 경부가 외반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부의 외반 각도는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구별하는 중요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세기~6세기에 유행하는 장경호는 단경호와 중경호에 비해 긴 시간대에 유행하므로 3~5단계로 형식 분류할 수 있다. 고배와 같이 무개에서 뚜껑을 받치는 받침턱이 있는 유개고배가 뒤에 출현하듯이 장경호도 유개장경호가 출현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경호를 무개장경호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무개장경호는 구연부에 받침턱이 없는 장경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8] 합천 봉계리 고분군의 중경호와 장경호의 출토 빈도에서 알 수 있듯이 무개장경호는 고배가 무개에서 점차 유개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유개장경호가 유행해도 6세기까지 유행하고 있



[그림 8] : 합천 봉계리고분군 출토 중형호 형식 비율
(박광춘 2016)

음을 알 수 있다[23]. 3~5단계의 무개장경호의 형식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3단계는 고식무개장경호, 4단계는 신식무개장경호, 5단계는 광구장경호로 형식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라의 경우 무개장경호의 경부가 직립하는 것이 유행하기 때문에 가야와 같이 광구장경호의 단계라는 형식이 성립될 수 없게 된다. 광구장경호는 구경 > 동부최대경 보다 큰 나팔상의 무개장경호로 정의한 바가 있다[24].

3. 중형호의 형식으로서 대부장경호

중형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대 안에 얹혀서 출토되는 호를 가리킨다. 중형호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부장경호의 경우 고식무개장경호에서 발전된 형식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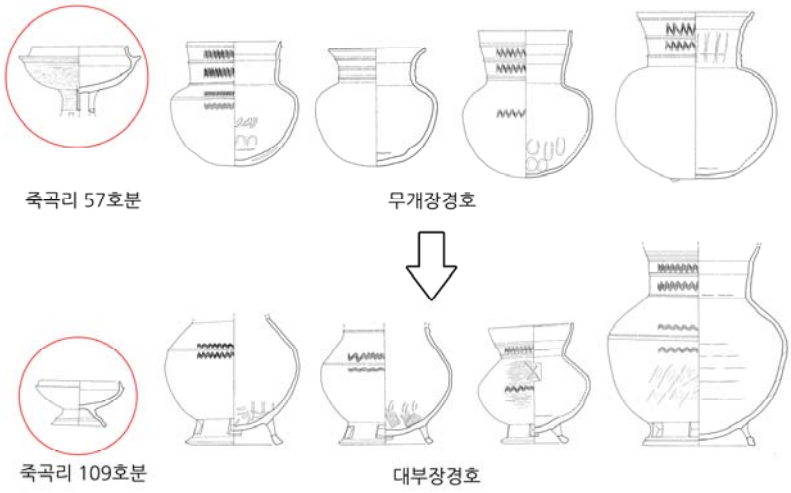
[그림 7]에서 신라・가야의 중형호의 형식은 1단계 단경호에서 4단계 신식무개장경호로 변천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다가 신식무개장경호가 유행하는 4단계에 고식무개장경호에서 형식 변천한 유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도 점차 유행하기 시작한다. 대부장경호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고식무개장형호가 기대와 한 세트로 사용됨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대형 매장시설의 축조라는 문제점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기대는 신라・가야의 고분에 많이 부장되어지는 것은 장송 의례용 제기로서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대는 소형고분에 비해 높은 신분이 묻힌 대형고분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기대는 중형호를 받치기 위한 용도 외에 장송의례를 성대하게 보이기 위한 무대 장치 역할도 겸하게 되었을 것이다.

고식무개장경호는 주로 물이나 술과 같은 액체를 담는 용기로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계급의 매장의례는 간

23) 박광춘, 앞 논문, 2016.
24) 박광춘, 앞 논문, 2016.

략했을 뿐 아니라 무덤의 매장시설 규모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대형 기대를 부장할 수 없게 되었다. 기대는 단지 받치는 용도이고 실제 액체를 담는 용기는 고식무개장경호가 담당하기 때문에 기대 부장 없이도 의례행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기대 없이 중형호만으로 간략한 의례 행위는 가능하지만 저부가 둥근 장경호를 의례용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부가 둥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받침대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장경호는 이처럼 고식무개장경호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식임은 자명하다. 대부장경호가 신라·가야의 어디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가장 연대가 빠른 것은 외절구연무개고배·이단직렬투창무개고배·이단교호투창무개고배와 동반하는 김해 칠산동 33호분이다[25]. 그렇지만 김해지역 죽곡리고분군 출토 중형호의 형식 변천은 무개장경호에서 갑자기 대부장경호를 변천하는 것이 아니



[그림 9] : 죽곡리고분군 무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 출토 비율 비교

25) 경성대학교박물관, 『김해칠산동고분군 I 』, 1989.

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뀌어 간다. [그림 9]에서 죽곡리고분군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이단직렬투창무개고배가 동반하는 57호분 출토 장경호는 무개장경호가 대부분인데 비해 가장 늦은 시기인 일단투창유개고배가 동반하는 죽곡리 109호분의 경우 대부장경호가 일색인 것을 알 수 있다[26]. 즉 대부장경호는 무개장경호에서 형식 변천한 중형호의 한 형식인 것을 알 수 있다.

Ⅳ. 장경호의 지역색

신라・가야토기에 있어 기대 안에 얹혀서 출토되는 단경호와 장경호는 용도가 같기 때문에 동일 기종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분류의 첫걸음인 용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장경호의 계통 뿐 아니라 지역색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단경호에서 중경호로 형식 변화를 거쳐 고식무개장경호 단계에 이르면 고배와 같이 개를 뚜껑으로 사용하는 유개장경호와 대(臺)가 저부에 접속하는 대부장경호가 출현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개를 동반하지 않는 장경호는 고배를 무개와 유개로 분류하는 것처럼 장경호도 무개와 유개로 분류해야 한다. 장경호를 무개장경호와 유개장경호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무개가 유개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할 뿐 아니라 지역색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종래 신라・가야토기 연구에 있어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는 신라 토기와 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새로운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27]. 여기에서는 우선 신라・가야토기에 있어 장경호의 지역색을 통해 기존의 연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2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죽곡리 유적』, 2009.
27) 김원룡, 『신라토기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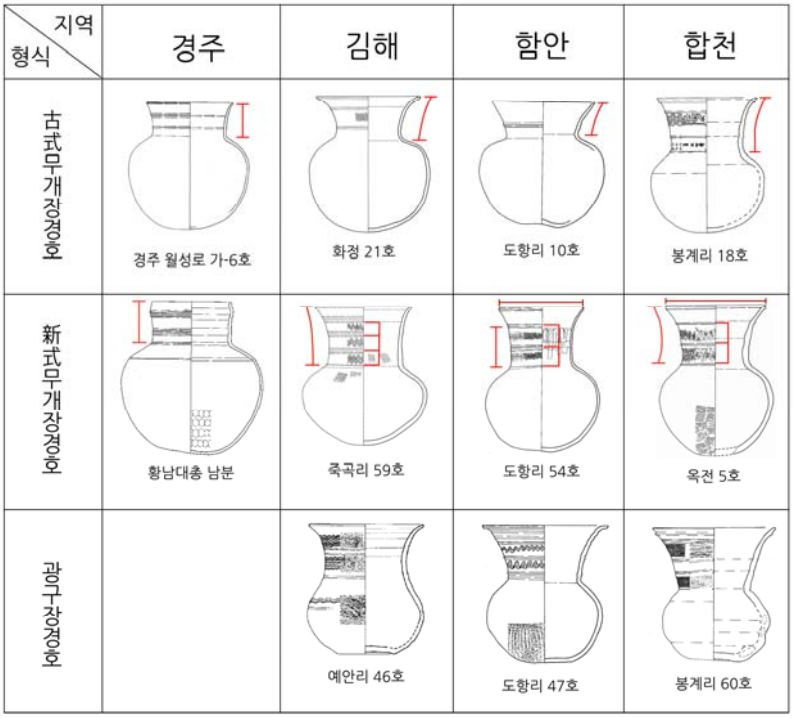
자 한다.

1. 무개장경호의 지역색

신라·가야 토기 연구에 있어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에 집착한 나머지 무개장경호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토기를 통한 신라·가야 문화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체의 변동을 모색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 예가 대부장경호 혹은 유개장경호가 출토된 유적의 문화와 정치체 해석에 있어 문헌적 기록을 무시한 채 일방적 해석을 하는 경우이다. 대부장경호가 어느 유적에 출토되면 신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해석한다던지 유개장경호가 어느 유적에서 출토되면 대가야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비근한 예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가 무개장경호에서 형식 변천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형식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개장경호와 같이 유행하면서 점차 숫자가 늘어나는 문화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무개장경호는 신라·가야 전 지역에서 5세기까지 유행을 보이고 있으며, 무개장경호 중에서 가장 늦은 6세기를 대표하는 형식인 광구장경호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신라에서는 더 이상 유행하지 않게 된다.

무개장경호의 지역색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는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5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식무개장경호가 유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고배의 형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가장 공통적인 지표는 이단교호투창유개고배를 들 수 있다. 이 단계에 경주와 가야의 장경호는 경부의 형태와 문양 시문방법 등에 있어 명확히 구분된다. 먼저 신라와 가야 장경호의 지역색은 경주 황남대총 출토 무개장경호는 경부가 거의 직립하고 구연부와 경부 경계가 뚜렷한 반면

가야 장경호는 경부가 나팔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부와 경부 사이의 경계가 덜 명확하다는 점에 있어 신라 무개장경호와 뚜렷이 구분 된다[28].



[그림 10] : 신라・가야 고분 출토 무개장경호의 지역색

이에 비해 가야 무개장경호의 형식은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김해 죽곡리 59호분 출토 무개장경호의 경우 경부가 길고 파상문 문양대가 3군데인데 비해, 함안 도항리 54호분 출토 무개장경호와 합천 옥전 5호분 출토 무개장경호는 파상문 문양대가 2군데로 차이를 보인다[29]. 함

2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남분)』, 1993.
2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9.

안 도항리 59호분 출토 무개장경호와 합천 옥전 5호분 출토 무개장경호의 차이는 구연부 넓이와 경부 형태에 있어 뚜렷이 구별된다. 함안 도항리 59호분 출토 무개장경호의 경부는 좁고 거의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세경호라는 형식명을 가지고 있다[30]. 이에 비해 합천 옥전 5호분 출토 무개장경호는 경부가 서서히 외반하므로 경부 넓이가 장세경호에 비해 넓다. 이처럼 신라·가야의 무개장경호는 다양한 지역색을 표출하고 있다.

신라·가야토기에 대한 지역색 연구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5세기 이후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4세기에 대한 지역색 연구도 많은 진천을 보이 있다[31]. [그림 10]의 고식무개장경호가 유행하는 4세기는 경부가 신식무개장경호와 같이 신라는 거의 직립하는데 비해 가야 무개장경호는 경주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외반한다. 경부를 구획하는 돌대와 문양인 파상문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5세기의 무개장경호에 비해 돌대수와 문양대가 적다. 그리고 무개장경호의 마지막 형식인 광구무개장경호 단계는 구연부가 동부최대경보다 넓은 완전히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경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 무개장경호의 경우 경부가 직립하므로 이러한 형식을 제작할 수 없어 6세기 이후에는 무개장경호의 유행되지 않는다. 종래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배의 투창 배치 방식과 대부장경호에 의해 결정하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고배와 대부장경호 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도항리고분군Ⅳ』, 2001.
경상대학교박물관, 『합천옥전고분군Ⅷ』, 1999.

30) 朴廣春, 「韓國 阿羅加耶 編年と時期區分」, 『先史學·考古學論究』Ⅴ, 2010, 龍田考古會.

31) 박광춘, 「3~4세기에 있어 가야토기 지역색 연구」, 『한국상고사학보』19, 한국상고사학회, 1995.

신 무개장경호를 주목하는 것은 종래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김해의 금관가야 토기 문화는 신라토기 문화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개장경호의 형식 변화를 무시하고 대부장경호에 주목하여 금관가야 문화가 5세기 이후 신라문화에 예속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금관가야 문화 복원을 왜곡되게 하고 있으며 문헌 기록과도 동떨어져 있다. 기준은 어떤 학자가 오래전에 만든 것이므로 부단하게 새로운 발굴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다. 만약 새로운 발굴 자료를 통해 검증되지 않으면 과거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림 11] : 고분 출토 고식 유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

2.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의 지역색

지금까지 한국 고고학에서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는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역할을 해 왔으나 대가야 양식론이 대두되면서 유개장경호는 가야 전체를 대표하는 토기 양식이 아닌 대가야 양식의 대표하는 지표로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신라와 가야의 어떤 유적에서 대부장경호가 출토되면 신라문화권, 유개장경호가 출토되면 대가야문화권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라와 가야의 여러 지역에서 축적된 발굴 자료에 따르면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는 [그림 11]의 대성동 1호분과 김해 칠산동 77호분과 같이 동반하는 고배에 의해 금관가야에서 가장 먼저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2].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출토되면 금관가야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다는 것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들 자료는 4세기에 편년되는 고식무개장경호 단계에 출현하고 있다. 이렇듯 신라양식의 지표인 대부장경호와 대가야양식의 지표인 유개장경호의 경우 가장 먼저 출현하는 지역은 신라와 대가야 중심지가 아닌 김해의 금관가야인 것을 알 수 있다. 유개장경호가 대가야양식의 지표가 되려면 고령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출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연대가 빠른 유개장경호가 출토되고 있어 새로운 발굴 자료는 기존의 학설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끔 한다.

무엇보다 [그림 8]의 합천 봉계리고분군의 경우 기대 안에 얹히는 중형호의 형식이 중경호 → 무개장경호 → 유개장경호 → 대부유개장경호로 형식 변천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33]. 여기서 유개장경호는 무개장경호에서 형식이 발전된 것이지 대가야인 고령에서 출현하여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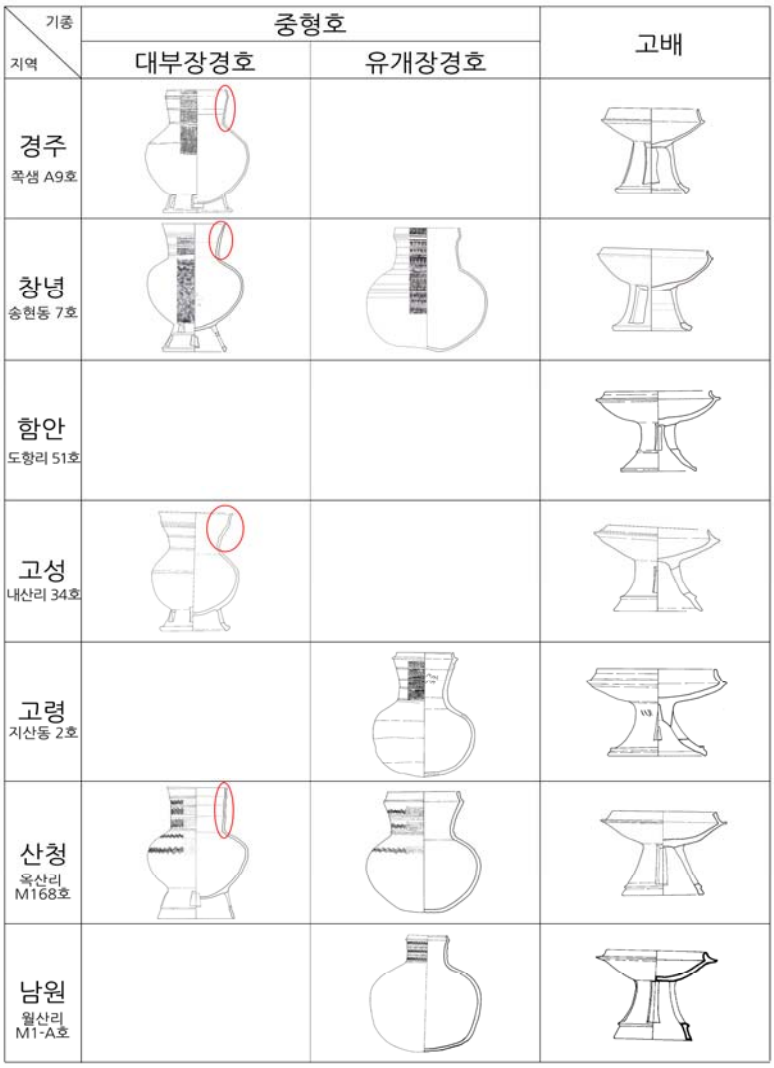
32) 경성대학교박물관,『김해대성동고분군 I 』, 2000.
경성대학교박물관, 앞 책, 1989.
33) 심봉근,『합천봉계리고분군』, 동아대학교박물관, 1986.

계리고분군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만약 유개장경호가 대가야에서 출현하여 합천, 남원, 함양, 거창 등으로 확산되었다면 무개장경호에 비해 유개장경호의 출토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야 한다. 봉계리고분군에서 무개장경호의 출토 빈도가 높은 것은 무개장경호가 유행하는 어느 시점에 유개장경호가 출현하여 같이 유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34].

여기서 신라・가야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의 지역색을 검토하는 것은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가 무개장경호에서 형식 변화를 하면서 문화의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 점차 빈도수가 늘어난 것이지 갑자기 신라양식 혹은 대가야양식의 영향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2]는 신라・가야 각 지역에서 동일 시간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일단투창무개고배가 출토하는 고분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대부장경호 혹은 유개장경호가 출토되는 고분을 비교하였다. 일단투창무개고배가 출토되는 6세기 전후에 해당되는 대부장경호는 경주를 비롯하여 가야 여러 고분군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경주 쪽샘 A9호분 출토 대부장경호는 가야 각 지역 고분군에서 출토한 대부장경호와 비교해도 닮은 것이 없다[35]. 이것은 가야 각 지역 출토 대부장경호는 신라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가야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개장경호도 가야 어느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산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일단투창무개고배와 동반하는 시기의 지역색은 뚜렷하다. 대부장경호처럼 유개장경호도 고령 지산동 2호분 출토품과 닮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36]. 창

34) 박광춘, 앞 논문, 2016.

35) 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Ⅱ』, 2012.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도항리고분군Ⅲ』, 200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성 내산리고분군Ⅱ』, 2005.
전영래,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3.



[그림 12] : 신라・가야 고분 출토 유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의 지역색

3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가야 역사관 신축부지내 고령지산동고분군』, 2000.

녕 송현동 7호분과 산청 옥산리 M168호분에서 대부장경호와 유개장경호가 동반하여 출토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장경호만으로 신라양식과 대가야양식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대변하는 것이다[37].

Ⅴ. 맺음말

신라·가야토기에 있어 형태가 비슷하여 단경호로 불러왔던 것 중에서 용도가 다른 두 기종이 있다는 것을 고분 부장 상황을 통해서 밝힐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고학 방법론에 있어 분류의 제1법칙인 용도를 우선시하여 먼저 단경호를 두 기종으로 분류해야 한다. 특히 기대 안에 얹혀서 사용되는 단경호는 경부가 점차 길어져 장경호로 형식 변천한다. 지금까지 이것을 무시하고 단경호와 장경호를 각각 기종으로 명명해서 분류한 신라·가야토기 편년안은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 기대 안에 얹혀서 사용되는 단경호와 장경호를 中形壺라는 기종으로 모아서 형식 분류하면 短頸壺 → 中頸壺 → 長頸壺로 형식 변천함을 알 수 있다.

고배를 무개와 유개로 분류하는 것처럼 장경호도 무개장경호와 유개장경호로 분류해야 한다. 유개장경호의 출현은 무개고배가 유개고배로 형식 변천하는 것처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능면에서 개선된 것이지 대가야 연맹체를 상징하는 지표로서 유개장경호의 확산은 과장된 해석이다. 그래서 무개장경호에서 유개장경호로 형식 변화는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연속성이라는 법칙에 의거하여 천천히 이

3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창녕 송현동 고분군 Ⅰ』, 2011.
경상대학교박물관,『산청 옥산리유적』, 2013.

루어진다. 마찬가지로 대부장경호도 무개장경호가 기대 안에 얹혀서 사용되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기능이 부가된 형식이기 때문에 급격한 형식 변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라·가야에서 고배가 무개에서 유개로 변천하는 것은 시간적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개장경호에서 유개장경호나 대부장경호로 변천하는 것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식이 대체되는 결과이다. 이것을 과장 해석해서 가야에서 유개장경호가 출현하면 대가야양식의 영향이라고 주장한다던지, 대부장경호가 출현하면 신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화의 연속성과 기대 안에서 얹히는 중형호의 형식 변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장경호는 무개장경호, 유개장경호, 대부장경호, 유개대부장경호 등 여러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다양한 조합을 이룬다. 또한 6세기를 기점으로 유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를 비교하면 가야와 신라의 정치체는 지역색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 유개장경호와 대부장경호에 의한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개장경호는 신라의 최상위 계급에서는 5세기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에 무개장경호의 경부의 형태가 직립하는가 나팔상으로 벌어지는가에 따라 신라·가야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신라·가야에서 행해진 수많은 조사 발굴을 통하여 많은 토기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과거 학설과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새롭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라·가야 토기는 기대 안에 얹히는 단경호와 장경호는 중형호라는 기종으로 거듭날때 용도·편년·지역색에 대한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다. 고고학도 역사학의 일부분이며, 문헌 기록을 무시한 일방적 해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앞으로 문헌 기록에 있는 가야의 수많은 정치체의 문화와 532년까지 존속한 금관가야 문화를 제

대로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논문은 2016년 9월 28일에 투고 되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김원룡,『신라토기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0.

朴廣春,「韓國陜川地域における土壙墓出土土器の編年的研究-多變量解析による分析」,『古文化談叢』22, 1990.

_____,「釜山・金海地域の古墳出土土器の編年的研究(上)(下)」,『古代文化』43-2・3, 1991.

박광춘,「가야토기의 분류단위 설정과 편년」,『가야문화』7, 가야문화연구원, 1994.

_____,「3~4세기에 있어 가야토기 지역색 연구」,『한국상고사학보』19, 한국상고사학회, 1995.

_____,「수리 형식학의 모색」,『영남고고학』20, 영남고고학회, 1997.

_____,「加耶土器의 시원과 부산・김해지역 토기 편년 재검토」,『영남고고학』27, 영남고고학회, 2000.

朴廣春,「韓國 阿羅加耶 編年と時期區分」,『先史學・考古學論究』Ⅴ, 龍田考古會, 2010.

박광춘,「금관가야 토기의 표준형식과 편년」,『호남고고학』37, 호남고고학회, 2011.

_____,「가야토기 大地域色 연구」,『문물』6, 한국문물연구원, 2016.

영남고고학회,「신라토기」,『영남의 고고학』, 사회평론, 2015.

중앙문화재연구원,「고 신라토기」,『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2014.

横山浩一,「型式論」,『日本考古學』1, 岩波書店, 1985.

Montelius, O. Die typlogische Methode: Die älteren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vol. i. Stockholm, Selbstverlag, 1903.

V.Gordon Childe,『Piecing Together the Past』,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4. (*발굴보고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Abstract

A Study of Shilla·Gaya short neck jar and long neck jar

Park, Kwang-Choon

Short neck jar and long neck jar of Shilla and Gaya along with the stand pottery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defining chronology and locality. However, short neck jar had not been identified into two different types but rather had been treated as one type which led diverse problems of understanding of the chronology of Shilla and Gaya pottery.

It is clear that the short neck jar which was sat on the stand and the long neck jar can be divided into the middle neck jar. There are certain typology of short neck jar to middle neck jar and long neck jar in this sense.

Long neck jar are various from with no lid, with lid and stand style also stand style with the lid. Among them long neck jar with the stand and with the lid are highlighted as they are the criteria to identify Shilla and Gaya Pottery. However, both types of pottery are developed from the long neck jar with no lid which led the conclusion that both types are the solid but congested cultural index. This work, therefore, will spot on the two different styles of short neck jar first of all. Then it will highlight the clear typology of short neck jar that sat on the stand which were developed to the

long neck jar.

Long neck jar was developed from the short neck and two different types such as with the lid and stand have been indicated to the new types which could be named long neck jar with no lid. This long neck jar with no lid had been favoured long time by then and so it is certain that his kind of jar identified locality of Shilla and Gaya. Long neck jar with stand and with lid are not just the congested cultural index. Archaeology is part of history and not only Guemgwan Gaya which had led wrong interpretation, many other Gayas must be re-discov ered its own but unique identity.

Key Words : short neck jar, long neck jar, function, chronology, local color